

# 보도와 평론



▲ 2014-110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주문〉

경북일보 2014년 3월 21일자 1면 「새누리, 포항시장 후보 김정재 확정」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우여 대표 주관으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포항시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우선 추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항시장 여성후보인 김정재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몇 개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다. 정치적 소수자 배려 역시 새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포항시를 우선 추천 지역을 놓고 다소 오해가 있다. 해당지역 후보가 야당 이길 수 없다는 말 나온다고 한다. 대단한 오해이다”라고 말하고, “당원들은 근거 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승리를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병석 부의장은 황우여 대표에게 포항시를 여성 우선 추천지역으로 의결하는 것을 재고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경 포항시장 예비후보 관계자들 200명(경찰추산)이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항의서한을 중앙당민원실에 제출하고 귀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49456](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4945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을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 추천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김정재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사실상 확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큰 제목을 「새누리, 포항시장 후보 김정재 확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중 사무총장은 『“포항시를 우선 추천 지역을 놓고 다소 오해가 있다. 해당지역 후보가 야당 이길 수 없다는 말 나온다고 한다. 대단한 오해이다”라고 말하고, “당원들은 근거 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승리를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정재 예비후보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 매체들은 홍 사무총장이 “우선추천 지역에서 단순히 여성신청자 공천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새누리당 지지자 사이에서 해당후보로는 야당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는 대단한 오해로 우선추천 지역의 후보자 재공모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여성 우선추천 검토 지역의 공천을 다시 받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홍 사무총장의 발언 가운데 바로 그 핵심 내용은 생략했고, 홍 사무총장의 다른 발언을 선별적으로 꿰맞춰 포항이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반해 다른 언론 매체들은 포항이 서울 강남, 부산 남·해운대·사상구, 대구 북구 등 5개 지역과 더불어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만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기사들이 나간 지 1주일 후쯤 포항을 포함한 문제의 6개 지역은 여성 우선추천 지역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영향력이 큰 특정인의 발언을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조합해 논쟁 중인 사안이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118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 〈주문〉

경인일보 2014년 5월 28일자 5면 「고양터미널 화재, 엇갈린 대응/강현석, 후원회 모금 문자 발송/최성 “선거운동 중단·수습 전념”」 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5월 28일자 4면 「강현석<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최성<새정치 고양시장 후보>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경인일보,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를 놓고 고양시장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 간 엇갈린 반응이 일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오전 9시2분께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58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로 어수선하던 이날 오후 3시50분 강 후보 캠프에서 후원회 모금안내 전화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문자는 다시한번 도전에 나선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은 1인당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기재했다.

한편 최 후보는 화재가 발생하자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기자회견 취소와 함께 선거운동 중단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전화 문자를 10시54분 일제히 발송했다.

이어 오후 3시36분에는 언론사 이메일을 통해 “화재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100만 안전도시를 이끌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입장은 달랐다.

후원회 문자를 받았다는 다수 시민들은 “선거운동도 좋지만 대형 화재 참사로 불안과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후원회 안내 문자 발송은 납득키 어렵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 관계자는 “누가 발송했는지 모르지만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기에 후원회 문자 발송은 다소 경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61188>)

(중부일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짧은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고양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의 대응이 대조를 이뤄 주목.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전 9시2분에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돼 30여분만에 진압이 완료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사건이 발생하자 최 후보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10시54분께 ‘선거운동 잠정 중단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부상자 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또 오후 3시36분 이메일을 통해 “화재사건 희생자에게 깊은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시장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사건이 마무리될때까지 시민의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

반면 강 후보 측은 화재가 수습 않은 오후 3시50분께 후원회 명의로 ‘강현석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한번 도전에 나선다’,

‘후원인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아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후원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

특히 화재와 관련 어떤 방식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다가 27일 “최 후보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인재로 시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했다”며 “늘 ‘안전’을 외쳐왔던 최 후보가 이번 화재사고에 대답해야 할 차례가 됐다”고 책임추궁식 보도자료를 배포.

문자를 받은 일부 시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화재로 인해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 어쩌나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정신나간 작태”라고 쓴소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3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와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7명이 숨진 고양종합터미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26일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는 후원금 납부를 안내하는 전화 메시지를 보내 빈축을 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 측은 화재 발생 6시간 48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 개인 후원금 한도와 계좌번호 등 후원금 납부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강 후보의 후원회 명의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두 신문은 실체가 모호한 『다수 시민』 또는 『일부 시민』의 입을 빌어 『“대형 화재 참사로 불안과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후원회 안내 문자 발송은 납득키 어렵다”』(경인일보), 『“이해가 안된다” “정신나간 작태”』(중부일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비해 경쟁자인 최 후보는 오전 10시 30분에 가질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한편 사태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문자 메시지와 보도용 이메일을 오전과 오후에 보냈다고 기사는 전했다.

두 신문의 기사만 놓고 보면 강 후보는 대형 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원금 모금에만 신경을 쓴 데 반해 최 후보는 사태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다른 언론들은 강 후보가 최 후보와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직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위 두 신문 기사에는 강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투표일을 1주일 남짓 앞두고 나온 이처럼 불공정한 기사는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재울

〈주문〉

중부일보(joongboo.com) 2014년 3월 19일자 「황은성 안성시장 ‘압도적 우세’…타 후보와 2.5배 격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안성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황은성 안성시장이 여유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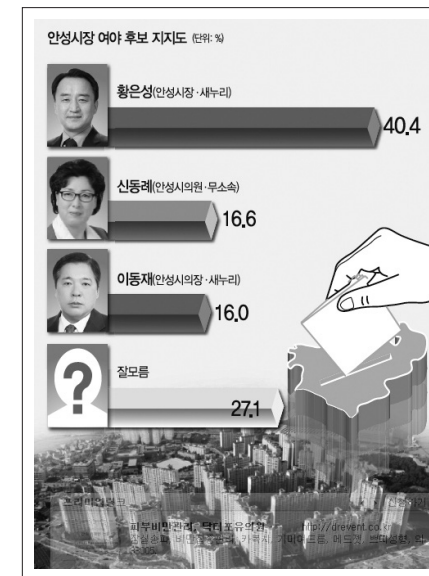
황 시장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은 물론이고, 무소속 예비후보인 신동례 안성시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신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이 의장, 황 시장 3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야 후보지지도에서는 황 시장이 40.4%를 얻어, 각각 16.6%와 16.0%에 머문 신 의원과 이 의장을 2.5배 가량 앞섰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27.1%였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황 시장이 37.6%로, 18.3%를 기록한 이 의장을 19.3%p차로 압도했다. 다만,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44.1%에 달해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계층이 새누리당 공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야권 후보의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가상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 후보를 압도한 가운데 황 시장이 이 의장보다 비교우위를 보였다.



황 시장(49.4%)과 신 의원(24.7%)이 맞붙을 경우 지지율 격차는 24.7%p였지만, 이 의장(40.1%)과 신 의원(23.9%)이 맞대결을 벌이면 격차는 16.2%p로



줄었다.

정당 후보 지지도는 새누리당 44.1%, 새정치민주연합 34.9%, 정의당 3.2%, 통합진보당 2.6%, 무소속 2.1% 순이었다. 무당층은 13.3%였다.

안성지역 유권자들은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터미널 활성화(33.4%)를 꼽았고, 시장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도덕·청렴성(32.1%)과 업무수행능력(22.3%)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6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신동례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무소속 출마를 가정 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 위 보도는 3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3월 26일)을 앞두고 있기에 후보자의 정당 소속을 밝히는 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인 바, 무소속 명기는 이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해도 순수 무소속후보와는 유무형의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으로 명기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310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3.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4년 10월 22일자 「신해철, 심장이상 응급실행…」

오후 1시 심정지 상황까지」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2일자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고 응급실행」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2일자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아… 응급실 이송 ‘충격」」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동아닷컴, 서울신문, 조선닷컴의 위 적시 기사 등 재전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 『신해철, 심장이상 응급실행… 오후 1시 심정지 상황까지』

가수 신해철이 심장이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22일 가요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신해철이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오늘 새벽 병원에 입원했고, 오늘 오후 1시 심장이 정지해 바로 심폐 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신해철은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구급차에서 눈을 떴지만 아직 대화는 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신해철의 심정지에 대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41022/67361388/3>〉

(서울신문)=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고 응급실행』

가수 신해철이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가요계와 병원 측 관계자는 22일 “신해철 씨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 오늘 새벽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오늘 오후 1시 갑자기 심장이 멈춰 바로 심폐

소생술을 받은 뒤 오후 2시 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신해철 씨가 구급차에서 눈을 떴지만 대화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의료진이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2500266>〉

(조선닷컴)=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아… 응급실 이송 ‘충격’

가수 신해철이 심장 이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돼 충격을 주고있다.

22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해철은 이날 오후 1시 갑자기 심장이 멈춰 심폐 소생술을 받은 뒤 오후 2시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관계자는 “신해철이 구급차에서 눈을 떴지만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신해철에 네티즌들은 “신해철, 이게 무슨 일이야” “신해철, 괜찮은건가” “신해철, 어디가 아픈가?” “신해철, 큰일날 뻔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2/201410220235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2/2014102202352.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22일 15시19분 홈페이지에 「신해철, 심장이상 응급실行… 오후 1시 심정지 상황까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약 6여분 만인 15시25분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 소생술 “정확한 원인 알지 못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어 다시 3분만인 9시11분, 「신해철 심장이상으로 병원行…응급실 긴급 이송」이란 기사를 전송했다. 역시 내용은 비슷하다. 네이버 검색 동아일보에서 ‘신해철’, ‘심장’이란 검색어를 치면 첫 기사 뒤 약 20시간 만에 68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 기사 중 일부는 사건의 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으나 대부분 재전송으로 확인된다.

서울신문 역시 22일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고 응급실行」이란 기사를 전송한 뒤, 다수의 서로 비슷비슷한 기사를 재전송했다. 네이버 검색 서울신문에서 ‘신해철’, ‘심장’이란 검색어를 치면 약 20시간만에 58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조선닷컴은 10월 22일 15시19분 「신해철, 심장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받아… 응급실 이송 ‘충격’」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가수 신해철이 갑작스러운 심장이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내용이다.

첫 기사를 올린 지 9분만인 15시28분 조선닷컴에는 「신해철, 심장 멈춰 심폐소생술… “눈은 떴지만 대화 안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시 뜬다. 제목만 대화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달라졌을 뿐 사진은 같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어 다시 8분만인 15시 36분에 비슷한 기사가 또 게재된다. 이런 식으로, 조선닷컴은 23일 낮 12시까지 24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다수의 기사를 재전송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내용의 진전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여러차례 재전송한 것이다. 네이버 검색 조선일보에서 ‘신해철’, ‘심장’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날 첫 기사 뒤 약 20시간 동안 94건의 기사가 확인된다. 대부분 재전송이다.

이는 같은 시간 동안, ‘신해철’과 ‘심장’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경향신문 5건, 한국일보 1건, 한겨레신문 2건의 기사가 검색된 것과 비교하면 재전송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하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며 신문의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5년 1월 30일자(캡처시각) 「천억대 자산가 “여배우 누드, 30억 줄테니 넘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천억 자산가 “이본 누드 30억에 사겠다” 알고보니 정체가... ‘충격’

배우 이본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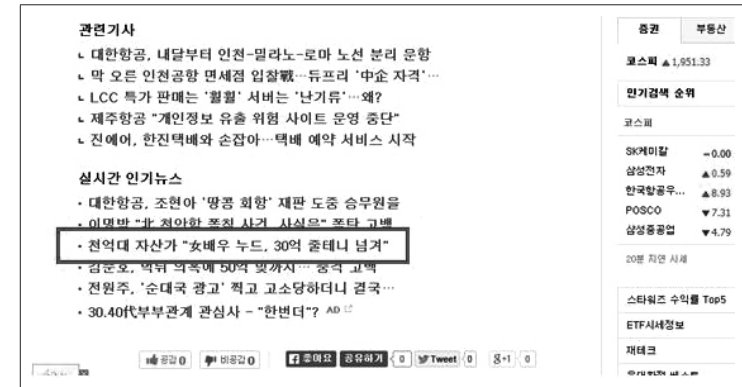
이본은 2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나는 재벌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가운데 과거 이본의 화보를 중견그룹 대표 A씨가 구매하려고 했다. A씨는 “30억을 줄테니 누드 서비스를 일주일 내로 중단하고 모든 사진의 원본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은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본 측은 “아무리 팬이라지만 당시 촬영한 모든 사진의 원본까지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돈 많은 스토키나 할 짓 아니냐”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30대 후반의 이 젊은 기업인은 기업 인수합병과 부동산 투자의 귀재이며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2976727#01.9550862.1〉



〈캡처시각 1. 30. 13: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2991111〉

※ 참고

1. 한경닷컴 재전송 기사 목차



〈캡처시각 1. 30. 13:20〉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e=0&query=%EC%9D%B4%EB%B3%B8%20%EC%9E%AC%EB%B2%8C&ie=utf8&sm=tab\\_opt&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mynews=1&mson=0&refresh\\_start=0&related=0](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e=0&query=%EC%9D%B4%EB%B3%B8%20%EC%9E%AC%EB%B2%8C&ie=utf8&sm=tab_opt&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mynews=1&mson=0&refresh_start=0&related=0)>

## 2. 한국경제TV

『1천억 자산가 “이본 누드 30억에 사겠다” 알고보니 정체가… ‘충격’

입력 : 2015-01-29 13:45

배우 이본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화제다.



이본은 2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나는 재벌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가운데 과거 이본의 화보를 중견그룹 A 대표가 구매하려고 했다. A씨는 “30억을 줄테니 누드 서비스를 일주일 내로 중단하고 모든 사진의 원본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은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본 측은 아무리 팬이라지만 당시 촬영한 모든 사진의 원본까지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돈 많은 스토커나 할 짓 아니냐”며 불쾌한 속내를 드

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0대 후반의 이 젊은 기업인은 기업 인수합병과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본은 동많은가봐” “이본 돌싱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본, 라디오스타 김구라가 못이길 듯”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2001000&wowcode=W014&artid=X20150129134524%20%20%20%20%20&compcode=HK>>

## 3. 소방방재신문

『라디오스타 이본 “내가 재벌이다” 발언 재조명, 외제차가 2억 원 호가?

온라인뉴스팀 기사입력2015/01/28 [23:46]

[소방방재신문/FPN 온라인뉴스팀]=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본의 과거 ‘재벌’ 발언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인 이본은 과거 QTV ‘신동엽과 순위 정하는 여자’에 출연해 ‘재벌가에 발도 못 디딜 것 같은 여자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방송에서 이본은 해당 주제를 놓고 “난 이 주제에서 열외다. 일단 내가 재벌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공개된 이본의 결혼 정보 회사 가입 신청서에는 2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70평 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본은 28일 MBC ‘라디오스타’에 ‘무한도전-토토가’ 특집의 주역들과 함께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

라디오스타 이본 재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라디오스타 이본 재벌, 대박이다”, “라디오스타 이본 재벌, 그렇구나”, “라디오스타 이본 재벌, 부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fpn119.co.kr』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30192&section=sc115](http://fpn119.co.kr/sub_read.html?uid=30192&section=sc115)>

#### 4. 헤럴드경제 (2004. 11. 17.)

##### 『“이본 누드 30억에 사겠다” 증견기업인 파격제안

기사입력 2004-11-17 20:17 | 최종수정 2004-11-17 20:17

탤런트 겸 DJ인 이본(32)의 누드를 한 증견그룹의 대표인 A씨가 현금 30억에 사겠다는 파격 제안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평소 이본의 팬이었다”는 이 기업인은 이본의 누드 프로젝트가 모바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난 12일 저녁 제작사측에 “30억을 줄테니 누드 서비스를 일주일 내로 중단하고 모든 사진의 원본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자신의 측근을 통해 은밀히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황한 제작사측은 A씨가 신뢰받는 젊은 기업인인데다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 약 1.5배의 금액을 단기간 내에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본은 이 소식에 발끈하고 나서 제작사의 희망을 꺾어 버렸다.

이본은 “애초에 돈을 바라고 찍은 누드도 아닌데다 팬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 있다”며 ‘30억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측은 계약시 약속했던 개런티를 파격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본을 회유하고 있지만 이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본은 “아무리 팬이라지만 당시 촬영한 모든 사진의 원본까지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돈 많은 스토크나 할 짓 아니냐”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0대 후반의 이 젊은 기업인은 기업 인수합병과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이본은 이 제안에 대한 심정을 자신의 누드 공식 사이트(www.sexyleebon.com)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밖에 자신이 직접 고른 극비 촬영 노출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 일반 남녀들의 사진공모를 통하여 자신이 누드 촬영시 사용했던 각종 명품, 소품 등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 기자(c\*\*@heraldn.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2&a>

id=00000008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이본이 1월 2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나는 재벌이다”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화제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본의 누드화보를 1000억대의 자산가가 30억원에 사려고 했고, 이본은 이를 뿌리쳤다 는게 골자다.

위 기사를 보면 대다수의 독자는 ‘이본이 방송에 출연해 ‘나는 재벌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배경은 ‘과거 자신의 누드화보를 30억원에 사려는 자산가의 제의를 뿌리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본이 이날 방송에서 “나는 재벌이다”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다르다.

실제 이본은 방송에서 과거 ‘나는 재벌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본은 “사실 재벌 얘기는 ‘나는 재벌이다. 그래서 재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재벌이다. 그래서 재벌이 부럽지 않다’는 뜻이었다”라며 “하지만 앞뒤 얘기는 다 들어내고 ‘난 재벌이다’는 말만 나갔더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에 게재된 ‘누드화보 30억 제의 거부’는 2004년 11월 보도된 내용이다. 이 내용은 거의 모든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었다. 한경닷컴은 독자의 호기심을 끌만한 과거 이본의 관련화제를 무려 11년이 지난 시점에 엉뚱하게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듯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작성된 이유는 온라인신문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어뷰징 때문이다. 상당수 언론사는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 화제가 될만하다고 판단하면 주제와 제목을 조금씩 바꿔 집중적으로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도 역시 이본이 ‘과거 발언’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다뤘다.

한편 한경닷컴은 이날 이본의 방송 발언과 관련, 8건을 송고하였다. 이 가운데

데에는 제대로 보도한 내용도 있다. 결국 위 기사는 무리하게 기사 건수를 늘리다 보니 나타난 오류인 것이다. 한경닷컴이 똑같은 내용에 제목만 바꾸고 보다 자극적인 사진으로 교체해 자회사인 한국경제TV 사이트에 게재한 것만 보아도 재전송 행위를 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써의 언론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